

한동대학교 제8대 대학평의위원회
2021학년도 1학기 제4차 정기회의
 (제9회 회의록)

구 분	평의원
의원정수	11명
재적인원	11명
참석인원	9명

회의 일시 : 2021. 9. 8(수) 19:00

회의 장소 : 비대면 ZOOM 회의

성원

1. 참석자 (9명) :
 도형기 의장, 조혜신 의원, 성현모 의원, 이대우 의원, 신송우 의원, 민준호 의원, 유장춘 의원, 조현지 의원, 편윤생 의원,
2. 불참자 (2명) : 최임성 의원, 김형욱 의원
3. 안건 관련 참석자 :
4. 회의록 작성 : 차효성 과장(전략기획팀)

회의 안건

- 총장후보발굴위원회 활동 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공유

심의 내용

- 도형기 의장이 총장후보발굴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일정을 의원들께 상세히 보고하다.
- 의원들이 총장후보발굴위원회의 기능과 총장후보로 피추천 된 분들과 지원자들의 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다.
 - 총장후보발굴위원회에서 피추천인에 대한 스크린 기능을 하는가?
 - 피추천인과 총장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공동체에 공유를 할 계획인가?
 - 피추천인과 총장지원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가?
 - 처음 추천을 받거나 총장지원을 받을 때 당사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동의받는 방법을 도입하면 안되는가?
- 피추천인이 누구인지와 총장지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공동체가 매우 궁금해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이해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의장이 다음과 같이 이해를 구하다.
 - 피추천인의 경우 본인이 추천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, 그리고 현 소속기관에서의 입장 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동체에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. 또한 의장 본인이 총장후보발굴위원회의 위원장으로

서 피추천인과 개별연락을 대부분 취해 본 결과 한동대를 위해서 좋은 분을 총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시겠다며 정중히 사양하시는 분들이 계셨다.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.

- 피추천인과 개별로 모두 연락이 되고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을 경우 가능한 하겠으나 그 범위는 또 다른 '이슈'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.
- 피추천인의 인원수나 최종으로 몇 분이 지원하셨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총장후보발굴 위원회에서 2021년 9월 24일에 예정된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.
- 피추천인이나 총장지원자를 평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. 사람을 '평가'한다는 것에서 발굴위 위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. 하지만 최종 심사(?) 일정이 있고 평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할 계획이다.

평의의원	도형기 <불참>	평의의원	성현모 <불참>	평의의원	유장준 <불참>	평의의원	조현지 조현지	평의의원	조혜신 조혜신	평의의원	이대우 이대우
평의의원	김형욱 <불참>	평의의원	최임성 <불참>	평의의원	민준호 민준호	평의의원	편윤생 편윤생	평의의원	신승우 신승우		